



기획시리즈



이 범 영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1. 해충 종류

쥐똥나무는 낙엽활엽관목(落葉闊葉灌木)으로 내한성(耐寒性)과 내공해성(耐公害性)이 강하고 잔가지가 많이 나는 수종으로 생울타리용 조경수로 적합한 수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쥐똥나무를 먹이로 하는 곤충 종류로 44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진정한 해충 종류는 5종 정도이다.

2 주요해충의 생태와 방제

가. 매실애기잎말이나방 *Rhopobota naevana* (Hubner)

〈표1〉 쥐똥나무의 해충 종류

목 별	해충종수	가해습성	주요해충종
매 미 목	15	흡 즙 성	쥐똥나무진딧물
		"	쥐똥밀깍지벌레
딱정벌레목	5	식 엽 성	가루깍지벌레
		천 공 성	무당잎벌레
벌 목	1	식 엽 성	붉은목나무좀
나 비 목	23	"	좀검정잎벌 별박이자나방, 미국흰불나방 등

조경수의 병해충 —쥐똥나무의 해충—

〈애기잎말이 나방과〉

주로 벚나무 종류를 가해하는 해충이지만 근래에 쥐똥나무 성장기인 5월부터 여름에 걸쳐 피해를 준다. 유충(幼蟲)이 신초의 잎을 합하여 말고, 그 속에 머물면서 표피를 식해하여 잎이 갈색으로 변하여 미관(美觀)을 해친다. 유충의 몸길이는 10mm 정도이고, 머리는 흑갈색이고, 몸이 얇은 흑갈색이다.

연 3회 발생하고, 줄기나 가지에서 알로 월동하며, 4월 하순~5월에 부화한다. 유충은 개체에 따라 발육 기간이 차이가 많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므로 각 충태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다. 1화기 성충은 5월 중순~6월 중순, 2화기 성충은 7월, 3화기 성충은 8~9월에 많이 발생하며 늦은 것은 10월



▲ 매실애기 잎말이 나방유충

에도 보인다.

방제는 유충 발생 초기에 메프유제나 수화제를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나. 별박이자나방 *Naxa seraria* (Motschulsky) 〈자나방과〉

동북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곤충으로 쥐똥나무에 특히 피해가 많으며, 유충이(幼蟲)이 잎과 가지에 거미줄을 치고, 모여 살면서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피해 부위는 잎이 없고 있지만 엉성하게 남게 된다. 쥐똥나무의 바깥 부위보다는 수관 안쪽을 주로 가해하기 때문에 수관 속이 훤히 빈 것 같아 보인다. 성충의 앞날개 길이는 19~27mm이며, 날개는 회색 바탕에 흑갈색의 작은 점이 산재해 있

다. 노숙유충은 몸길이가 30mm 정도이며, 몸이 가늘고 긴 편이며, 3~5복절에는 복각이 없고, 6복절에만 있다. 유충의 몸은 흑색과 담황갈색의 무늬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머리는 검은 색이다.

연 1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가지와 잎에 거미줄을 치고, 중령유충이 집단을 이루고 월동한다. 4월부터 잎을 가해하다가 5월에 거미줄 사이에서 번데기가 되며 6~7월에 성충이 우화하여 잎에 산란(產卵)하고, 알은 8월에 부화(孵化)한다.

방제는 유충기해기에 디프수화제나 피레스유제를 살포하면 잘 구제되나 심한 피해를 받은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 쥐똥밀깍지벌레

기도 한다. 쥐똥나무 생울타리 중 어느 일부분이 완전 고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해충의 피해 때문이다. 수컷은 나뭇 가지에 모여 살며, 흰 밀랍을 분비하기 때문에 피해를 발견하기 쉽다. 암컷 성충의 깍지길이는 1.0mm이고, 넓은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 황갈색이며, 광택이 있다. 등면은 약간 융기(隆起)되어 있으며, 작고 검은 반점이 있다. 수컷 성충의 더듬이는 6마디이다.

연 1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5월 하순에 성숙하여 수천 개의 알을 산란하며, 6~7월에 유충이 나타난다. 유충은 정착한 후, 흰 밀랍을 분비하여 몸을 덮고, 2회 탈피한 후, 성충이 된다. 암컷에 비해 수컷의 개체수가 적으며, 수명도 매우 짧다.

보편적으로 발생 개체수가 적으므로 발견 즉시, 피해가지를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유충 발생시기에 메치온유제, 디메토유제 1,000배 액을 1주일 간격으로 1~2회 살포하여 방제할 수 있다.



▲ 별박이자 나방유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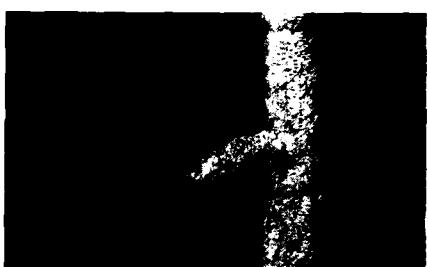
다. 쥐똥밀깍지벌레 *Ericerus peta* (Chavannes)

쥐똥나무의 가지에 기생하여 흡즙가해하므로 수세의 약화는 물론 나무 전체를 고사(枯死)시키

라. 쥐똥나무진딧물 *Aphis crinosa* (Paik)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록된 진딧물로서 쥐똥나무 신초에 모여 살면서 흡즙가해한다. 피해 신초는 생장이 저해되고, 잎이 변형된다. 유시충(有翅蟲)의 몸은 흑갈색이지만 배에서 밀납가루가 분비되어 있어 회색으로 보인다. 머리에는 이마혹이 없고, 더듬이는 6마디이며, 마디 지름의 2배가 되는 긴 센털이 많다. 무시충(無翅蟲)은 적갈색이나 흰 밀납가루로 덮여 있다. 유시충은 몸길이가 2.4mm, 무시충은 2.7mm 정도이다.

이 해충은 5~6월에 날개가 없는 태생(胎生) 암컷이 쥐똥나무의 신초와 잎뒷면에 모여 살면서 흡즙하여 자세한 생활사는 밝혀지지 않았다. 방제는 유충 발생기에 진딧물용 약제를 살포한다.



▲ 쥐똥 밀깍지벌레



◀ 쥐똥나무 진딧물